

Ⅷ. 참 고 자 료

1. 2019년도 시정연설문
2.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3. 2019년도 예산의 목 구분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 정 연 설

2018년 11월 22일
제277회 도의회 정례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 함종국 부의장님,
김병석 예결 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며 새해의 도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를 목표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 올해는 우리 강원도에는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역사상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평창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는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민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는 제10대 도의회와 민선7기 도정이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벌써 5개월이 돼 갑니다.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강원도의 정치 경제 발전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도정의 첫 번째 목표는 “평화와 번영”입니다. 남북 화해의 시대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분단의 질곡을 벗어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열린 공간, 한반도의 요충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데 도의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 동해안 공동 관광 특구의 조성, 동해 북부선 철도의 착공, 경원선의 복원, 평화의 바다 조성을 비롯해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의 정치이자 경제입니다. 동시에 강원도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이 사업들 한건 한건이 모두 쉽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온갖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질도 있을 수 있고 중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강원도가 처한 역사의 질곡을 벗어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안전이고 안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경제이자 돈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정착 되면 강원도는 관광-물류-교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쟁의 시대, 분단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정치,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동해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북한강처럼 깊은 마음으로, 설악산처럼 높은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기필코 열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포스트 올림픽의 마무리, 저출생을 극복할 돌파구 마련,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언제나 도민들께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계신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무리,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들의 사후관리는 가칭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와 합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규모는 천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세부내용까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리왕산의 사후활용 계획이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한 대립 속에 있습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1주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평화 외교의 장” 으로서의 평창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유산들이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올림픽 기념관과 테마파크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수준 높게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국제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교통망 확장 계획도 우리 강원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부의 제동으로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춘천-속초간 고속철도는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노선을 확정 짓고 기본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 철도는 역세권 개발을 미리 기획하고 준비해서 철도 개통과 역세권의 개발이 함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공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은 사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국 노선들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항공 노선이 갑자기 중단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거리 동남아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양공항 전담 항공사 「플라이 강원」을 차질 없이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안정적인 항공 노선을 확보하게 돼서 양양공항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속초항과 동해항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초항은 관광항으로, 동해항은 물류항으로 역할분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은 22만 톤급 크루즈 항으로 동해항은

북극항로와 북한을 오가는 북방항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인구 소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 정부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단계의 부부들은 아기 낳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출산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파업이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 정책의 실패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역대 모든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야만적인 피임 정책으로 인구 절벽의 단초를 만들었고 이후의 정부들도 가장 소극적인 정책들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들을 여전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저출생에 대한 이런 태도들을 당장 멈추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인구는 국력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세입니다. 인구가 줄면 정치력도 줄고 경제는 저성장하고 문화 활동도 위축됩니다. 그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그동안 저출생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스라엘과 프랑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합계 출산율 3.0 프랑스는 2.0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우리는 프랑스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프랑스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GDP의 3.7%를 출산 정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세출예산 대비 0.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가 새롭게 마련한 정책은 이렇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을 ‘아기 1명을 낳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 키우기에 전념하는 주부에게는 전업주부 수당 20만 원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예산 승인으로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을 앞장서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에 가장 바라는 정책이 단연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도정의 가장 큰 중점도 일자리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일자리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취업률은 63%입니다. 전국 평균 61%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있던 취업률이 3~4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상용 근로자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들은 상대적인 수치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2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는 확대 실업률은 더 높은 편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실업 인구 전체를 전수 관리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도민들 한명 한명을 파악하고 직장을 알선하고 직업 전환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용 정책은 북유럽 복지 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겐트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라고도 하고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연대 임금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고용 시장에 개입하여 전국 최고의 고용 상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외식업, 숙박업, 전통 시장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도 준비하겠습니다.

노령화 문제도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문제 또한 우리가 잘 준비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 주택, 의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정책들은 그야말로 부족하고 또 부족한 수준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우리 도정에 가장 원하는 정책 역시 일자리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4만 1천개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라기보다는 복지에 가깝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말 그대로의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도록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주체는 기업입니다. 이미 마련돼 있는 적극적 성장 정책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신관광, 신산업, 신농정, 신산림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디지털 헬스 케어,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10대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을 비롯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에 관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는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즉 화재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큰 화재가 나거나 인명 피해가 있을 만한 건물들은 지금 상태에서 예측 가능합니다. 건축 자재나 건물구조가 대형사고가 나도록 돼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 건축물들에 대해 건축주, 소방 본부, 도와 시군이 합의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화재의 원인을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권은 우리들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 를 비롯한 주민참여보장, 의회 사무처의 독립성보장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도입 등 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함께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서는 부족한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권의 실질적인 내용인 재정 분권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의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초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2,580억 원으로 사상 처음 당초 예산안이 6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2조 2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4,364억 원이 늘어 4조 7,8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4,4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기금별 집행액이 늘어 금년도 보다 332억 원이 감소한 1조 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4조 3,500억 원 보다 10% 늘어난 4조 7,8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 중소기업과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활성화에

전체 예산의 25%인 1조 2,108억 원

- 사회복지와 교육에 41%인 1조 9,726억 원
- 문화·관광, 환경 분야에 11%인 5,449억 원
-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3.3%인 1,560억 원
- 인건비와 행정운영 기타 분야에 18%인 9,0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3,778억 원 보다 17% 늘어난 4,433억 원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18억 원
-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880억 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992억 원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은 올해 1조 615억 원 보다 3% 감소한 1조 283억 원으로

- 중소기업육성에 1,167억 원, 비축무연탄관리 853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787억 원을 비롯한 11개 통합관리기금에 3,4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개별기금으로 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465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6,3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올림픽의 마무리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강원도가 나아가 할 방향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도 헬기 소리를 싫어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최전방 철책 부대에서 헬기 소리가 나는 것은 누군가 지뢰를 밟았거나 총기 사고가 났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헬기 소리를 들으면 손가락을 내려놓던 동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지뢰밭 한 가운데 있는 GP가 폭파되는 화면을 봤습니다. 분단 체제 속에서 다치고 숨진 젊은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 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벌써 2018년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은 황금 돼지해인 기해년(己亥年)입니다.

강원도민들과 강원도의회가 황금 돼지처럼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제277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12. 4.)

존경하는 김 병 석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고,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아파트 신축분양 증가, 고속도로와 강릉선KTX 개통 등 SOC 확충, 내국세 증가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4,364억 원 증가된 4조 7,86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과 의료급여기금 운영, 소방 안전 특별회계는 국비 등이 늘어나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증가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대책을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 포스트 올림픽 유산 조성, 평화사업과 신강원 정책의 발굴·투자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SOC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5조 7,893억 원 보다 8.1%(4,687억 원) 증가한 6조 2,58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조 7,8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33억 원, 도 자체 운용기금은 1조 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아파트 신축분양 증가와 강릉선KTX를 비롯한 SOC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11.1% 증가된 1조 2,0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늘어 금년보다 10.3% 증가한 3조 4,3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926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8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8%인 1조 417억 원으로 금년 보다 3.8%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직·소방직 공무원 인원 증가와 공무원 호봉 승급, 지방세 증가에 따른 법정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7.4%인 3조 7,051억 원으로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대책 등 민생안정사업과 포스트 올림픽, 평화사업, 신강원 등 도정 현안 투자 강화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3,890억 원(11.7%)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원리금 상환) 규모는 0.8%인 396억 원으로
금년 299억 원 보다 9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첫째, 남북교류 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유산 조성을 위해

- ◆ 남북교류협력 기금 출연, 남북 평화영화제 개최, 문화 올림픽 레거시 사업,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등에 2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 ◆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평화 지역 시설현대화,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평화누리길 조성 등에 1,3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신강원 구현을 위해

-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크루즈 관광 활성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등 신관광 분야에 138억 원
- ◆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등 신농정 분야에 130억 원
- ◆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수소·탄소포럼 개최,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수소 충전소 설치,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 개최 등 신산업 분야에 338억 원
- ◆ 도시숲 조성, 숲속 야영장 조성, 산림·산촌투어 팜파티 행사 지원, 산촌 테마여행 프로그램 개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추진,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등 신산림 분야에 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 ◆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 일자리 공제 지원,

노인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산불예방 감시활동 지원 등에 1,53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이 행복한 튼튼한 강원경제 구축을 위해

- ◆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 지원, 지역산업 육성 사업 추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옥계지구 개발 사업 등 민생 안정과 경제기반 구축에 1,4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 국외본부 운영, 지역 산업 해외마케팅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강원 글로벌 상품센터 조성 등 글로벌 강원경제에 31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 지방도 확·포장과 유지보수, 스마트 도로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농어촌 희망택시, 공공형 버스,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등 지역균형 개발에 2,89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섯째, 강원 문화·관광·체육의 명품화·세계화를 위해

- ◆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생활형 SOC, 강원FC 운영 지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등에 2,2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강원형 복지모델 실현을 위해

- ◆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보육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저출생 대책 사업에 4,13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 ◆ 치매안심센터 운영, 경로당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시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고령화 대책 사업에 5,7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 참전 명예수당, 장애인 연금, 자활근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 시설 확충,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체감복지 실현에 6,13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덟째,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을 위해

-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산불 예방 감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한우품질 고급화, 농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에 7,3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 ◆ 생명사랑 안전실천 스티커 보급, 영유아 카시트 보급, 재난안전 무선 마을방송 설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안전 분야에 1,61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 ◆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개선, 밭 가뭄 대비 종합 대책,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 택시 폭염쉼터 설치 지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양식장 폭염 대책 지원 등 폭염·가뭄대책에 3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 소방청사 신·증축, 노후 소방차량 보강, 119 구급차량 보강,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 노후 구조·구급장비 보강, 소방헬기 운영 등 소방 분야에 7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에, 사업성 경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4,433억 원으로 올해보다 655억 원(17.3%)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433억 원) 보다 85억 원이 증가한 518억 원 규모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시·군 징수교부금에 2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16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66억 원) 보다 23억 원이 감소한 43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기후변화대책 추진, 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 조성 등에 4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2,473억 원) 보다 519억 원이 증가한 2,992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2,992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위탁·심사 수수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에 2,966억 원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했으며, 26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방안전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806억 원) 보다 74억 원이 증가한 880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7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재원으로,

소방서 신축, 노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877억 원을 투자했으며, 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되겠으며, 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1조 4,944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68억 원, 융자금 회수 734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615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이자 수입 138억 원, 기타 수입 1,589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조 283억 원, 비융자성 사업 1,787억 원, 융자성 사업 1,27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602억 원 등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말(1조 615억 원) 보다 3% 감소한 1조 28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과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병 석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올림픽의 마무리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강원도가 나아가 할 방향과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의 결과를 담고,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민생안정 사업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둔 필수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높이신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 석 두

3. 2019년도 예산의 목 구분

코드	과 목	코드	과 목	코드	과 목
101-01	보수	301-11	사회성과보상금	401-04	행사관련시설비
101-02	기타직보수	301-12	기타 보상금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2-01	민간인 이주보상금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01-01	사무관리비	303-01	포상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1-02	공공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1-03	행사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01-05	공립대학 운영비	304-03	의원상해부담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01	국내여비	305-01	배상금등	405-02	도서구입비
202-02	월액여비	306-01	출연금	406-01	기타자본이전
202-03	국외업무여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	407-01	국외자본이전
202-04	국제화여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1-01	민간융자금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01-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1-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203-02	정원가산업추진비	307-05	민간위탁금	501-04	시·군·구 융자금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7-06	보험금	502-01	출자금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7-07	연금지급금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7-08	이차보전금	60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204-02	직급보조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601-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204-03	특정업무경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01-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205-01	의정활동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01-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205-02	월정수당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601-06	차관상환
205-03	의원국내여비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1-07	기타해외채무 상환
205-04	의원국외여비	308-02	징수교부금	602-01	예치금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308-03	자치구 조정교부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08-04	시·군 조정교부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5-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	308-05	자치구 기타 자원조정비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5-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08-06	시·군 기타 자원조정비	702-01	기금전출금
205-09	의장협의체 부담금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3-01	법정전출금
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03-02	비법정전출금
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704-01	예탁금
206-01	재료비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5-01	예수금원금 상환
207-01	연구용역비	308-11	기타부담금	705-02	예수금이자 상환
207-02	전산개발비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207-03	시험연구비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0-01	국외경상이전	706-01	감가상각비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310-02	국제부담금	706-02	당기순이익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706-03	적립금
301-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1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801-01	일반예비비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11-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311-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801-03	내부유보금
301-07	외빈초청여비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1-01	시설비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401-02	감리비	802-03	과오납금 등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401-03	시설부대비	802-04	잡손금